

광주시·입주자·시공사, 유출지하수 문제 해결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조정 회의서 당사자 최종 합의 광주천 수질 개선 도움...아파트 하수도요금 부과 안해

광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 입주자 대표회, 시공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 처리 고충 민원을 해결했다. 광주시는 20일 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각화동 더샵광주포레스트의 유출지하수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 '고충민원 해결 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정 회의는 지난해 광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1일 1천100이 넘는 유출지하수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김상훈 입주자대표회장, 김명준 포스코이앤씨 CS실장,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입주자 대표는 유출지하수를 하천으로 배출하기 위한 관로 신설 방안을 담은 조정서에 서명, 민원 해결에 최종 합의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공동

주택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광주시·국민권익위원회에 깨끗한 유출지하수 하수도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민원을 지속 제기했다. 광주시는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유출지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돼 처리할 경우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광주시는 민원 근본 해결 방안을 유출지하수 하천 배출로 보고 유출지하수를 서방천으로 배출하기 위한 관로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시공사의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냈다. 광주시의 민원 해결 노력과 더불어 정준호 국회의원, 신수정 시의회 의장도 입주민들을 설득하는 등 힘을 보탤었다. 합의에 따라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하수도 사용료에 상당 금액을 지원하고, 광주시는 시공사가 지원한 비용

등으로 유출지하수를 서방천으로 배출하기 위한 관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합의를 통해 주민 부담은 덜고 시공사에게 일부 책임을 부담하게 해 공동주택 건축 때 유출지하수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서방천 유지용수로 공급해 광주천과 영산강 수질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보다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성과공유회 광주시구는 20일 오전 시청 다목적홀에서 김이강 청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구형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성과공유회'를 가졌다. 이날 공유회는 장애인들이 행사 진행과 공연 등을 직접 맡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는 자리로 꾸며졌다. <광주서구 제공>

우치동물원, '동물복지' 우수기관 선정

멸종위기종 동물 진료·스트레스 관리 호평

광주시는 20일 "전날 열린 '2024년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정기총회'에서 우치동물원이 동물복지 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치동물원이 협회 어워드 평가 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는 서울대공원을 비롯해 국내 14개 동물원·수족관으로 구성된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야생동물과 사육동물에 대한 보전, 복지증진, 연구,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4년 국내 동물원 어워드 평가"는 전국 14개 동물원을 대상으로 '동물원 동물복지'를 평가했다. 우치동물원은 인력사가 고려됐던 기형 설가타육지거북(체리)의 인공 복감

개 수술을 비롯해 세계 최초 영무새 인공부리 수술 성공, 호랑이 CT 중앙 진단, 노령 알락꼬리여우원숭이의 활체 어 적용 등 멸종 위기종 동물 진료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동물의 합사 때 스트레스 호르몬 측정, 적절한 약물 적용(가바펜틴 등), 건강 검진을 위한 메디컬 트레이닝 등 스트레스 관리에서도 호평받았다. 성장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이번 수상은 단순한 동물복지를 넘어 웰빙과 웰다잉을 동물에게도 적용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에 맞춰 동물권을 존중하는 동물원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전남도 개발 김 '햇바디 1호' 위판가 최고액 다시 썼다

진도서 120kg 1자루 108만원 기록...기존 잇바디돌김의 2배

전남도가 자체 개발한 김 신품종 '햇바디 1호'(사진)가 김 위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2025년 종자 주문량이 폭증하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11월 초부터 김 생산이 시작된 가운데 이달 6일 진도위판장에서 '햇바디 1호'가 108만원(1자루 120kg)에 거래됐다. 이는 기존 잇바디돌김의 2배가 넘는 가격이다. '햇바디 1호'는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잇바디돌김의 안정적 생산을 목표로 2016년부터 전남 해역에서 자생하는 우량 업체를 선발 육성하고 품종 개발 연구에 나서 2023년 개발한 신품종

이다. 기존 잇바디돌김보다 각포자(씨앗) 방출량이 많고 김발 부착율이 높다. 또한 잇바디돌김의 특징인 업체에 꼬불거림이 많고 맛이 좋아 김 양식어업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업체의 성장이 빨라 채취 횟수가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어 생산 효과도 좋다. 잇바디돌김은 김 원초가 곱창처럼 꼬불꼬불해 '곱창김'으로 불린다. 서남해에서 양식되는 토종 품종이다. 김 생산 기간 중 가장 먼저 생산되며 오독거리는 식감과 맛이 좋아 가격도 가장 비



싸다. 하지만 생산 기간이 짧고 채묘가 어려워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아 어업인 소득이 불안정한 단점이 있다. 신품종 '햇바디 1호' 개발로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되고 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그동안 국내 최초 양식 김 3종류 모두를 신품종

으로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방사무늬김 2종(해풍 1호·해풍 2호), 모무늬돌김 2종(해모돌 1호·신품 1호)과 잇바디돌김인 햇바디 1호의 등록으로 총 5개 품종이 품종 보호를 받고 있다. 전국 물김 생산량의 78%를 생산하는 전남도는 2011년부터 어가에 보급한 '해풍 1호'로 김 생산량을 늘려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2년 연속 수출 1위 품목인 김 수출이 8억달러 시대에 접어든 것도 김 신품종 종자의 보급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로 풀이된다. /김재정기자

전남 산불 취약지 숲가꾸기 박차

이달 말까지 12개 시·군 342ha

전남도는 20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맞춰 오는 30일까지 순천 등 12개 시·군 산불 취약지와 산불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342ha 산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숲가꾸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불 예방 숲가꾸기는 주택, 도로, 산림휴양시설, 문화재 주변 등 산불 취약지역의 나무 밀도를 조절하고 산불의 시발점이 되는 가지, 낙엽, 하층 식생 등을 제거·관리해 산불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산림 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소나무

를 솎아내고 산림 외부로 반출해 불에 탈 수 있는 연료의 양을 줄임으로써 산불 대형화를 막을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산물을 '사랑의 빨간 나누기 행사'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키로 했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불·산사태 등 산림 재해로부터 안전한 숲을 조성하고 숲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자원화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양시원기자

건강과 행복! 우리 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굿모닝서울안과
GOOD MORNING SEOUL EYE CENTER

도안/백내장
라식/라섹
안검하수/쌍꺼풀
눈물길수술

2층 수술센터 / 3층 외래진료센터
- 안구건조증 클리닉 운영

광주 서구 무진대로 965
태영내과21빌딩·메디칼센터 2, 3층
☎ 062.430.2020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에덴병원

진료내용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건강검진센터



대표전화 : 062-260-3000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 170번길 10 (두암동)

www.ct119.co.kr

광주시티병원

시민재활의학과요양병원

광주시티병원 062.460-7000
응급실 062.460-7119



2023.01.01 - 2025.12.31

관절전문병원
전문병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650.2500